

보도 일시	2022. 1. 18.(화) 09:00	배포 일시	2022. 1. 18.(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

스포츠산업, 국가경제 기여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결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활발한 일자리 창출, 창업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 보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산업연구원(원장 주현)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부가가치 효과, 주력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1.79)이나 제조업(1.9), 서비스업(1.68)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0.77)과 제조업(0.6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0.87)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10.1)이나 제조업(6.25), 서비스업(12.46)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7.4), 제조업(4.72), 서비스업(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3.16), 자동차(7.55)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분	< 경제적 파급효과 >		< 고용효과 >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전체 산업 평균	1.79	0.77	10.1	7.4
제조업	1.9	0.64	6.25	4.72
- 반도체	1.3	0.67	1.9	1.77
- 석유화학	1.83	0.45	3.16	2.44
- 자동차	2.5	0.7	7.55	6.24
서비스업	1.68	0.87	12.46	9.2
- 도·소매업	1.76	0.88	16.54	10.41
- 운수·보관	1.77	0.66	13.06	8.11
- 전문·과학기술	1.83	0.86	11.12	9.15
스포츠산업	2.06	0.9	15.25	11.24

활발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증가로 경제적 위상 높아져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4.06%로 전체 산업의 1.9배 수준이었고, 사업체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3.09%로 전체 산업의 1.6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5년 1.28%에서 2019년 1.3%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구분		2015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스포츠산업	68조 4천억 원	80조 7천억 원	4.24%
	전체 산업	5,311조 2천억 원	6,195조 1천억 원	3.92%
	비중	1.28%	1.3%	
종사자 수	스포츠산업	38만 3천 명	44만 9천 명	4.06%
	전체 산업	2,088만 9천 명	2,272만 3천 명	2.13%
	비중	1.83%	1.97%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9만 3,350개	10만 5,445개	3.09%
	전체 산업	387만 4,156개	417만 6,549개	1.89%
	비중	2.41%	2.52%	

이번 연구는 그간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산업연구원 조현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높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스포츠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만큼, 스포츠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연구 결과



①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 스포츠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일자리 창출 효과(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음.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에 비해 2~5배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음

산업구분	< 경제적 파급효과 >		< 고용 효과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체 산업 평균	1.79	0.77	10.1	7.4
제조업	1.9	0.64	6.25	4.72
- 반도체	1.3	0.67	1.9	1.77
- 석유화학	1.83	0.45	3.16	2.44
- 자동차	2.5	0.7	7.55	6.24
서비스업	1.68	0.87	12.46	9.2
- 도·소매업	1.76	0.88	16.54	10.41
- 운수·보관	1.77	0.66	13.06	8.11
- 전문·과학기술	1.83	0.86	11.12	9.15
스포츠산업	2.06	0.9	15.25	11.24
- 참여 및 관람 스포츠	1.83	0.93	13.62	8.92
- 용품공급 및 인프라 제공	2.39	0.81	15.45	11.08
- 스포츠 관련 서비스	2.04	0.84	15.44	11.27

- 생산유발계수: 한 산업의 최종수요 발생이 전 산업에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 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한 사업의 최종수요 발생이 전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계수
- 취업유발효과: 한 산업의 산출량 증가로 인한 생산파급과정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고용유발효과: 한 산업의 산출량 증가로 인한 생산파급과정에서 유발되는 피용자 수

②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분석)

-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특히, 종사자와 사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구분		2015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스포츠산업	68.4조원	80.7조원	4.24%
	전체 산업	5,311.2조원	6,195.1조원	3.92%
	비중	1.28%	1.3%	
종사자 수	스포츠산업	38.3만명	44.9만명	4.06%
	전체 산업	2,088.9만명	2,272.3만명	2.13%
	비중	1.83%	1.97%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9만 3,350개	10만 5,445개	3.09%
	전체 산업	387만 4,156개	417만 6,549개	1.89%
	비중	2.41%	2.52%	

* 출처: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스포츠산업조사